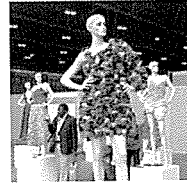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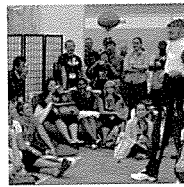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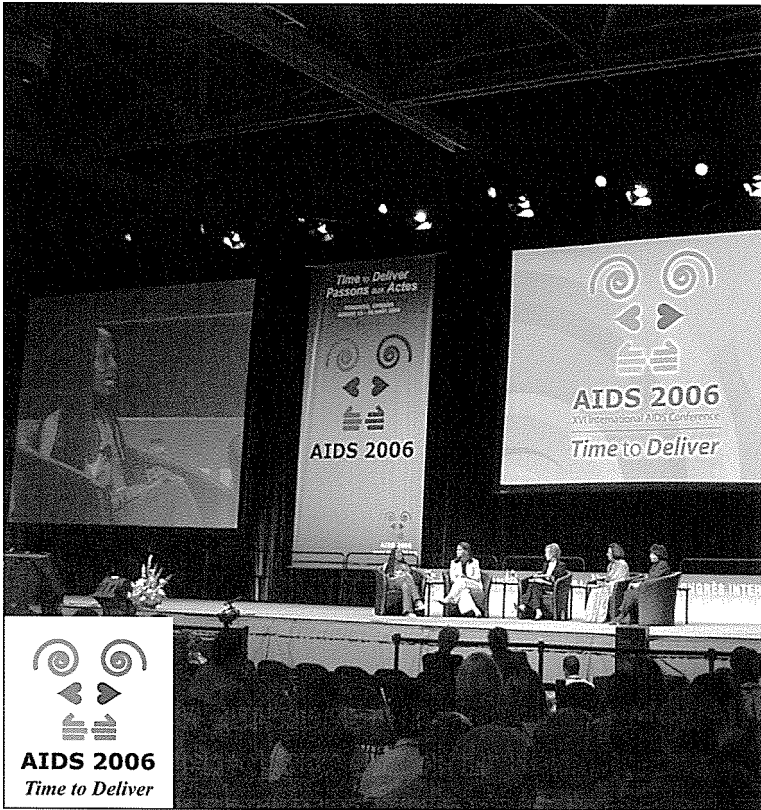


# ‘Time to Deliver’ 제16회 세계 에이즈대회

‘Time to Deliver’ 2007 세계 에이즈대회(이하 ‘16회 세계 에이즈대회’)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의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 행사 기간, 행사장 전체의 집결지인 ‘Time to Deliver’라는 슬로건은 세계 에이즈대회 25주년을 맞아 ‘Time to Deliver’라는 슬로건을 통해, 에이즈 예방, 치료, 관리, 연구, 교육, 정책,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장려해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다.

서경훈 \*본회 레드리본센터 운영지원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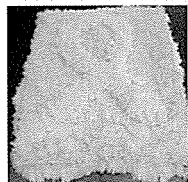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참가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한국에서는 불과 수십 명만 참가한 것에 비해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중국어 페이지를 제공할 정도였다. 중국은 자국의 공식 감염인이 6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중국의 에이즈 예방과 치료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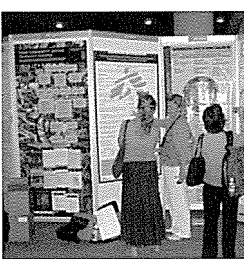
#### 아프리카 국가들, 보다 적극적인 자원호소

역시 이번 대회의 주요 관심국가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었다. 많은 주제 발표와 행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더 이상 선진국 연구원이 아닌 자국의 연구진에 의한 자료 발표가 이어졌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관계자들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ABC'제도가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방법을 요구했다. 그들은 HIV/AID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이 없는 국가가 멸망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생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임신부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의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는 자국 정부의 무능력함이나 정부권력의 부재로 인한 지원금의 누수현상을 걱정했다.



### 감염인의 인권보다 지원금의 향방에 초점

이번 회의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번 대회가 감염인의 인권을 위하기보다 G8 국가가 지원하는 돈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다. 수십억 불에 달하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각국의 참가자들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를 통해 다시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이번 회의의 주인공은 회의 기간 동안 감염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땀을 흘리며 발로 댄 감염인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었다. 감염인의 자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아서 대부분의 발표 주제도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을 받기 좋은 여성과 어린이 감염인에 대한 발표가 많았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빌 게이츠도 더 이상 'ABC'제도가 아닌 여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약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



### 감염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감염인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단순한 치료와 투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감염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감염인들은 선진 부국들이 에이즈 치료와 관련해서 충분한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감염인 인권증진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 감염인들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제약회사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거대기업인 다국적 제약회사가 약효가 좋은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값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에 막혀 잊혀지지 않을까 우려된다.